

▶ 매일 INDEX



5면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의료기술 선점 나서
전북대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첫 삽'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음 10월 7일) 제2663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방역 준수사항 적극 지켜달라”

송 지사, 대도민 담화… 코로나 위기극복 동참 호소
전주·익산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추후 확대 검토

전북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와 익산의 거리두기 상향 등 대응 단계 강화를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비롯한 확산 차단 동참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우리 도는 이번 감염을 지역 내 대량 확산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씨로 보고 있다”며 “방역 전문가와 시군과 협의를 거쳐 대형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익산시와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도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밀집도가 높은 군은 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확산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의 거리두기 상향조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발생은 수도권 등을 통해 전파된 지역 외 감염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송 지사는 도민의 이동과 접촉 자체 등 방역수칙 준수 노력과 전북도의 철저한 방역체계가 상호 작용하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3가지 방역 준수사항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송 지사는 “모임이 잣은 연말연시 다른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수능 이후 크리스마스 연휴 시기의 외출과 송년회, 해맞이 등 연말연시 모임은 우리 사회라는 더 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삼가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타자를 방문하거나 모임에 참석한다면 최소 3일은

해 달라”고 호소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전북도는 감염 확대에 대비해 격차체계를 점검하고, 군산의료원 등에 전용 병상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전

주와 익산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연발연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다시 긴장의 끈 조여매야… 모임 자체를’

전북도, ‘연말연시 3.3 핵심수칙’ 실천 당부

살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도민들의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체의 안녕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연말연시 3.3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연말연시 핵심방역수칙 3개 실천과제는 ▲타자역 방문 자체 (12월 3일 수능, 크리스마스 연휴, 지인 모임, 연말연시 해맞이 등) ▲모임 강력 자체수능이후 연말 송년 모임, 크리스마스,



전주시는 지난 20일 원산구 팔달로 237(서노송동)에서 전북이주여성상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가정·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듬는다

전주시, 이주여성상담소 개소… 의료·법률 등 지원

전북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힘들어 하는 이주여성들을 돕는 전문 상담소가 전주에 생겼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원산구 팔달로 237(서노송동)에서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 여성가족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김승수 시장,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이주여성상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이주여성상담소는 올해 여성가족부의 2020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이주여성상담소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8100만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상담소는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대표 이금남)가 맡아 운영하고, 소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상담원이 배치됐다. 상담원 중 4명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이주여성이다.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통번역 서비스 ▲의료·법률·체류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화(063-255-136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상담소 운영으로 폭력 피해 등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동시에 가정폭력 예방으로 인권친화 환경 조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준 전북이주여성상담소장은 “전북이주여성상담소가 힘들고 지친 이주여성들에게 밝은 미소를 되찾게 하고, 무지갯빛 희망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데다 연말연시 각종 실내 모임 등에 따른 방역환경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그간 따뜻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한마음으로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 매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지만 모임 자체 등 ‘연말연시 3.3 핵심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